#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성경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 ~ 5장 11절〉**

[32]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34]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36]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37] 그가 밭이 있으매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9]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10]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하고 있었던 재물을 다른 교인들과 나누어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혹은 바나바(권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나누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게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얻었던 칭송은 얻고 싶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말씀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 1. 한 몸인 공동체는 나누며 삽니다.

[32]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34]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36]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37] 그가 밭이 있으매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나니, 제자들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더니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공동체)가 한 몸임을 경험하게 되었고, 공동체가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영적인 희년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좋았겠습니까? 자신의 것으로 나누었던 부자들이 좋았겠습니까?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큰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2.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3]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 [7]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9]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 [10]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

아무도 그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결단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요셉을 사도들이 일컬어 권위자(바나바)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그것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가지고 온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을 원하였지만, 세상의 것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남겨 두고, 하나님께 다 가져왔다고 거짓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가혹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였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몸으로 사는 모습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겠다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분위기를 헤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 드릴 만큼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삶일까 기대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전심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한 몸인 공동체가 되게 해 주소서.